



지부교섭 속보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상병휴직 기간 보장!
기본급 146,746원 인상!

제10호 / '18.7.19(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노사공동위 합의없이 타결없다!

결렬 후, 첫 교섭 열렸지만 제시안 없어

4주만의 교섭, 진전 없어

6월 21일(목) 교섭이 결렬되고 4주만에 재개됐다. 11차 교섭이 7월 19일(목) 15시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에서 열렸다. 하지만 사측은 제시안도 없이 나왔다. 여전히 각 회사별 입장 차이가 커서 조율이 어렵다는 얘기였다. 교섭 시작한지 3달이 넘었는데도 조율이 안된다는 건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노사공동위 수용 안하면 임금교섭 안열린다

이번 교섭에서 김정태 지부장은 노사공동위원회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노사공동위원회 참여가 합의되지 않으면 임금교섭도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요구안이다. 노사가 대화하는 자리인데도 사용자들이 피한다면 사용자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노사공동위는 그동안 사회양극화를 만들어온 재벌적폐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대화를 하는 기구이다. 그동안 정권이 재벌 중심의

경제 회복 정책들을 내놔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볼 때다. 금속노조가 제안하는 노사공동위에서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논의해봐야 할 때다.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반가워해야할 요구안이다.

지금은 지부교섭에서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논의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각 회사별로 참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사업장은 올해 임단투가 아주 거세게 진행될 것이다. 지부는 다시 한 번 더 공동으로 참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주 23(월)~25(수) 4시간 파업 돌입!

결렬 후 첫 교섭에서도 이렇다 할 내용이 없이 끝났다. 지부는 곧바로 다음주 23(월)~25(수) 사이에 사업장별로 총량 4시간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큰 어려움없이 수용할 수 있는 요구안 갖고도 이렇게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사측에게 경고의 뜻을 명확하게 전할 것이다. 노사공동위를 수용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8월 이후에도 더 거센 투쟁이 닥쳐올 것이다. 지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 방식으로 투쟁하겠다

사 : 날씨가 너무 덥다. 한온시스템지회가 상경투쟁 가셨는데 고생 많으셨다. 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 건강이 걱정된다. 하반기 경제지표가 안좋다. 우리나라 대표산업인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가 다 그렇다. 조선, 철강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고 그나마 버티는 전자도 반도체 빼고는 다 넘어갔다. 반도체도 2~3년 뒤 어떨지 모른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제조업이 강해야 한다. KBS 다큐멘터리 3일에 나온 군산 상황을 보고 느낀게 있다. 기업은 지속 경영이 가능해야 한다. 안그러면 고용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 교섭하면서 각 회사 사정을 들어보니 녹록치가 않다. 그럼에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노 : 오랜만에 뵙는다. 결렬 선언하고 4주만이다. 올해 교섭이 쉽게 끝날 거라 봤다. 요구안이 가벼워서 그랬는데 예전보다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럴 거면 내년부터는 아예 요구안을 무겁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권이 잠깐 반짝하다 마는 게 많다. 그러면서 가장 손쉬운 조직 안된 노동자 임금, 복지, 희망퇴직 같은 거부터 손댄다. 예전부터 전혀 변한 게 없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건 재벌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이었고 그런 요구를 담은 것이 노사공동위다. 그런데 사용자가 그것도 거부하니까 사용자의 진실성을 믿을 수가 없다. 경제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도 하고 재벌 혜택도 줬다. 근데 경제 안살아났다. 역대 정권 다 똑같았다. 그럼 방법을 바꿔봐야 하는 것 아닌가? 재벌적폐 청산을 사용자들도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급속노조가 그걸 해보려고 노사 공동위를 제안하고 있다. 방법을 바꿔볼 때가 됐는데 지역 사용자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하겠다니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오늘은 믿을 수 있는 제시안을 보여주면 좋겠다. 없으면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투쟁하겠다.

사 : 안 마련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 화요일 중앙교섭이 잘 안된 상황이고 다음주에도 마무리가 안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중앙이 마무리가 안됐는데 지부가 마무리할 수 있나? 노사공동위는 중앙 요구에도 있고 지부에도 있는

데 중앙이 마무리가 안된 시점에서 우리가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노사공동위 구성만 아니면 나머진 협의해서 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노사공동위를 조합의 안을 따르라고 하면 우리가 안을 내기 어렵다.

노 : 그걸 못낸다고 하면 오늘 교섭 못한다. 사용자가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경제 회복하자고 했지만 안됐다. 노사공동위에서 다 열어놓고 대화하자는데 이걸 못받는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섭도 아니고 일단 대화해보자는 건데,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 교섭 여기서 끝내자.

사 : 중앙교섭 3개 사업장은 결과에 따라가면 된다. 근데 나머지 사업장 3곳은 업종이 달라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 : 만약에 들어와서 소외되는 부분 있으면 지부와 얘기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도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다 열어놓고 고민하겠다. 자동차 산업만 두고 하는 것도 아니다. 노사간에 다 열어놓고 대화하자는 거다.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과 미참여 사업장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임금 인상율도 차이가 난다. 이걸 좁혀보자는 거다. 중앙교섭에 미참여 사업장에 노사공동위 틀을 만들면 들어와서 대화하겠냐고 던진거다. 지부 사용자들이 노사공동위 참여한다고 하면 지부교섭 의견접근할거다. 임금교섭도 지회별로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 휴가 전 타결도 사용자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할 수도 있다.

노사공동위 의견접근 안되면 아무것도 안된다. 임금교섭도 안 열린다. 그만큼 고민 많이 하고 있다. 노사공동위 안되면 지회에서 어떻게 해도 도장 안찍는다.

사 : 각 사 입장차가 크다. 오늘 의견을 조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부장님이 답답한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왜 의견을 못좁히는 지도 양해해달라.

노 : 나중에는 각 사별로 참여에 대해 개별적으로 참가 동의서 쓰라고 할 거다. 안쓰는 사업장은 일단투 뺀세게 간다. 사용자들이 논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한다.